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창세기 20:14-16
2026 년 11 월 1 일 오전 11 시

반복되는 실수, 변함없는 은혜

< 주여 도우소서 >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이주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창 20:1). 성경은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을 떠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그랄은 창세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된 지역으로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당시 사라는 이미 90 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라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2 절). 아브라함은 오래전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결과 사라는 또다시 다른 왕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경험과 계산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낳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 반복되는 두려움, 흔들리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로 자신의 약속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3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추었던 진실을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 왕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고, 사라 역시 아브라함을 오라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5 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결백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6 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병을 고쳐 주시거나, 재물을 주시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실패와 장애물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과 죄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으셨을 뿐 아니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7 절).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때문에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집안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완전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사명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8 절). 아브라함은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그랄 왕과 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하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9 절).

2. 인간의 실수에도 계속되는 은혜

여러분, 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방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비멜렉은 오히려 죄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을 속인 아브라함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14 절). 아비멜렉은 사라만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와 종들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아비멜렉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의 관대한 처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15 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곳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창세기 12 장에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떠나보냈지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왕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고, 재물을 주고, 거주할 땅까지 허락하였습니다.

나아가 아비멜렉은 사라에게도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16 절).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천 세겔을 주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큰 재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를 위하여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할 때 지불한 금액이 은 사백 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왜 이렇게 많은 은을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사라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은 사라가 스스로 왕궁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을 속이고 왕의 아내가 되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실제로 그런 소문이 퍼졌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은 천 세겔을 주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사라의 수치가 가려졌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재물은 단순한 선물을 넘어 사라의 결백을 드러내고 손상될 수 있었던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라만 돌려보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셨지, 재물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가 부당하게 당할 수 있었던 수치까지 회복시키려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일로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위험에서 건져 내셨을 뿐 아니라, 사라의 명예까지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냈으니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 장에서도 소돔을 위하여 중보기도하였습니다. 의인 오십 명에서 시작하여 열 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0 장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비멜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17 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3.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브라함에게도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회복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닫혔던 태를 다시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21 장에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창 21:1).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와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사라도 은혜를 입었고,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3 절에서 사라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13 절).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을 위험에서 건져 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삶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잘못을 반복하지도 마십시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며,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는 반복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